편의점 노동자의 지붕 없는 삶

드라마 <손해 보기 싫어서> 속 편의점 노동자의 노동환경

글 편집실

멀티플레이어 요구하는 다양한 업무

대학 입학 후 편의점 야간 근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김지욱(김영대). 훌륭한 일머리를 가진 그는 완벽한 근태관리를 자랑하는 건 물론, 시재 점검, 물류·재고 정리까지 철저한 5년 차 '편돌이' 면모를 보인다. 더불어 동네에서 시민 경찰이자 의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타인을 잘 살피는 선한 성품까지 지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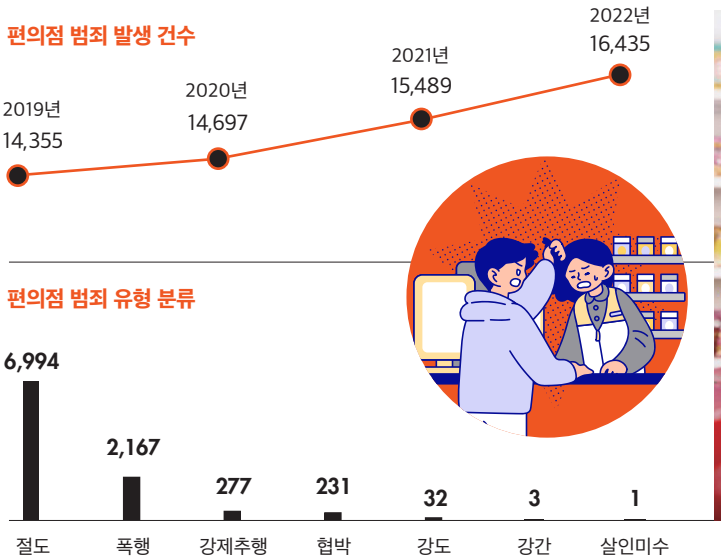
드라마 속 지욱의 모습에서 알 수 있듯, 편의점 노동자는 단순히 계산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. 편의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점점 다양해지면서 노동자가 숙달해야 할 업무도 늘어나고 있다. 손님 응대뿐 아니라 택배, 복권, 커피 판매를 비롯해 더 나아가 매출 증가를 위한 마케팅 상품 진열 등도 전부 이들의 몫이다. 즉 멀티플레이 마케터의 임무도 지녀야 하지만, 현실은 여전히 평균 시급 하위 업종 1위를 기록하고 있다.

거꾸로 가는 편의점의 최저임금

2024년부터 법정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되었다. 전국의 5만 개가 넘는 편의점 중, 일부 점주들은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. 또,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도 한다. 근로계약서 작성 후 급여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자가 신고하면, 근로계약서가

정산 금액 부족 시 편의점 노동자 대처 방법

자료 : 알바천국, 편의점 알바생 1,448명 대상 조사 (2017)



자료 : 경찰청, 범죄 발생 장소별 통계 (2022)

증거가 되어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.

게다가 주휴수당 부담을 줄이려 노동시간을 주 15시간이 넘지 않도록 '쪼개기 채용'을 하는 점포도 늘어나고 있다. 하지만 당장 생활비가 급한 청년들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 부당한 대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.

편의점 노동자들은 교대 시 포스기에 적힌 금액과 금고에 남은 현금이 일치하는지 시재 점검을 한다. 만약 일치하지 않는다 해도 노동자가 메꿀 필요는 없다. 하지만 한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편의점 노동자가 자비로 차액을 메꾸는 경우가 50% 이상인 것으로 집계되었다. 엄연히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행되는 것이다.

사각지대에 가려진 야간 노동자

야간에 근무하는 노동자에게는 '진상 고객'을 넘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. 편의점은 주로 점장 혹은 아르바이트생 한 명이 근무하는 데다 고객의 방문이 적은 야간에는 범죄 표적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.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편의점에서 발생한 범죄는 매년 늘고 있다. 지난해 11월에는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노동 중이던 20대 여성 A 씨가 20대 남성 B 씨에게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구타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. A 씨가 휴대전화로 신고하려고 하자, B 씨는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폭행을 시작했다. A 씨는 이 사건으로 왼쪽 귀 청력을 잃고,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앓는 중이다.

이 외에도 편의점을 표적으로 한 범죄들이 발생하면서 노동자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. 이곳에서 유일한 안전장치는 포스기 키패드의 긴급 신고 버튼뿐이다. 신고하더라도 경찰이 올 때까지 범죄자와 대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버튼 실효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.

생활 편의 및 야간 안전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편의점은 이제 한국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. 그렇기에 더욱 야간근무자의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거나 범죄예방 시스템을 갖추는 등 지원이 필요하다. 수많은 상품이 매일 팔리고 채워지지만, 편의점 노동자만큼은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.